

글·사진 : 편집부

거북이 마라톤 대회

한국오리협회,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성황리 종료



거북이마라톤 걷기대회 출발선에서 다함께 파이팅



한국오리협회 홍보부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6월 19일(일)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개최된 「거북이 마라톤대회」에서 ‘맛 좋고 영양 많은 으뜸 건강유류, 대한민국 오리고기’를 슬로건으로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 행사를 개최, 3,000인분의 오리고기 시식회와 오리선물세트 상품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질푸른 녹음이 우거진 남산 산책로에는 새벽 무렵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행사 시작 시간인 7시에는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거북이

마라톤대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한국일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명 뽀빠이로 유명한 이상용씨가 사회를 맡아 당일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는 한편, 이창호 협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산 오리고기의 효능과 특징 등을 소개하여 홍보효과가 배가되었다.

이번 행사는 아침부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많은 서울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오리고기 홍보부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협회는 오리 룰 짬, 오

행사스케치

거북이 마라톤 대회,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리 된장주물럭 구이, 오리 편전 등 ‘오리요리 10선’ 전 시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오리오향냉채, 오리 스위트탕수, 오리 찹스테이크 등 3천 인분의 오리고기 시식행사를 준비하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시식을 위한 사람들의 행렬은 광장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시식 시작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 날 오리고기를 먹어본 시민들은 일제히 “오리고기가 몸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도 좋은 줄 몰랐다”는 감탄과 함께 오리고기의 판매처와 효능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행사 말미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오리고기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40개의 오리고기 선물세트가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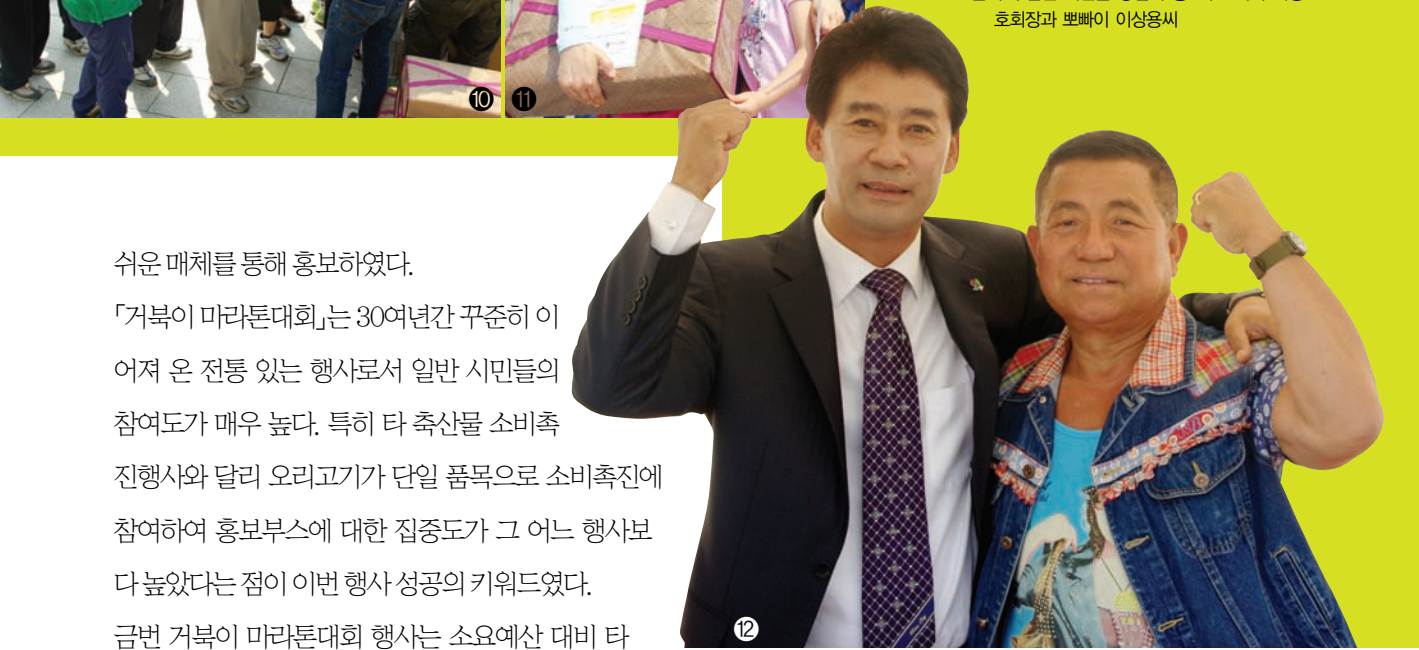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일부 축산물 가격폭등에 대한 대체육류로 오리고기가 소비될 수 있도록 함과 시여파로 오리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현안에 맞춰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계절별 오리고기 효능 및 원산지 표시관련, S라인 오리의 내용이 담긴 POP이젤 및 현수막 전시 등 오리관련 정보물 전시로 국내산 오리고기의 효능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그리고 시식을 위해 홍보부스를 찾은 3천여 명의 시민에게 홍보물(위생장갑) 배포 시 원산지표시제 확인 전단지를 나눠주며 일일이 원산지 표시 확인을 당부,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 지난해 8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적극 알리고자 사전에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공중과 방송매체 섭외 등 국민들의 정보 접근이 가장



① 3천 인분의 오리고기 시식 ② 오리고기 시식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③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확인 전단지 배포 ④ 끝없는 오리고기 시식 행렬 ⑤ 제407회 거북이마라톤대회 기념사진 ⑥ 사회자 이상용씨와 이창호회장과의 인터뷰 ⑦ 이강현전무, 이창호회장, 이상용방승인, 안승준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장 ⑧ 오리고기 경품을 추천하고 있는 이창호회장 ⑨ 경품으로 제공한 오리고기 40세트 ⑩ 오리고기 경품에 추천된 시민들 ⑪ 협회 홍보부스에서 이창호회장과 뽀빠이 이상용씨



쉬운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다.
 「거북이 마라톤대회」는 30여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 있는 행사로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특히 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달리 오리고기가 단일 품목으로 소비촉진에 참여하여 홍보부스에 대한 집중도가 그 어느 행사보다 높았다는 점이 이번 행사 성공의 키워드였다.
 금번 거북이 마라톤대회 행사는 소요예산 대비 타 축산관련 소비촉진 행사보다 큰 성과를 이뤘다. 특히,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오리요리를 선보임으로써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앞으로 우리협회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407회

거북이마라톤 대회

현장 속으로!



- ① 행사에서 배포한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확인 전단지
- ② 오리 인형탈과 시민
- ③ SBS생활경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창호회장
- ④ 광장을 가득 메운 3천 여명의 시민들
- ⑤ 오리요리 10선 전시
- ⑥ 오리고기 효능 및 원산지표시제 관련 POP이젤전시
- ⑦ 오리요리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뽀빠이 이상용씨
- ⑧ 타악예술단 하랑
- ⑨ 협찬 : 한국오리협회가 새겨진 무대
- ⑩ 미스코리아와 한국오리협회 임직원
- ⑪ 세계에어로빅협회의 에어로빅 시범
- ⑫ 에어로빅을 따라하는 시민들
- ⑬ 오리고기를 시식하는 시민들

